

# 익산 나눔공간이 찾아갑니다 ‘익산다이로움’ 역대급 혜택

### 원광·부송·동산 사회복지관서 8~9일까지 ‘이동공간’ 운영해 신속 지원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 '나눔공간'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공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공간'을 8일부터 이들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공간은 29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원광·부송·동산 사회복지관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곳을 통해 대기자들에게 기부 물품이 신속하게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위기가구의 경우 배달서비스도 시행한다.

앞서 익산 나눔공간은 개장 이후 폭발적인 호응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2,600여명의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이용 가능 인원이 100여명으로 한정됨에 따라 대기자들이 모두 물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공간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대기자들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선호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공간'을 8일부터 이들 동안 운영한다.(나눔공간 전경)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지난 2개월여 동안 기부물품 총 1억4,3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식품을 2,860명의 위기가구에 지급했다. 이동공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총 5,300여명의 시민들이 위기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정부 긴급지원의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나눔공간 운영을 시작했다.

나눔과 연대를 기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기부자가 모여들고 있다. 8일 기준 기

부된 금액은 249건, 4억1,610만 원에 이른다.

유화영 마켓장은 "이동공간 운영으로 대기기간을 1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동공간 운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민과 밀착된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이벤트·충전 인센티브 등 전국 최대 규모 혜택 제공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익산다이로움'이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독려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익산다이로움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최대 규모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달에는 '음식점&카페 업종'에서 3만 원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총 200명에게 1인당 2만 원의 이로움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나카드사와 함께 진행한다.

앞서 시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 3월에도 익산다이로움 사용자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월 '익산다이로움 이용

전통시장 장보기 인종 이벤트'를 실시해 720명에게 당첨금을 지급했다.

지난달에는 다이로움 3월 사용결제분 페이백 지급대상자 가운데 20만 원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총 500명을 선정했으며 1인당 2만 원씩 오는 2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최초 카드형으로 출시된 익산다이로움은 지난 5월 기준 가입자 9만8,546명, 총 발행액 2,570억 원에 달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이로움카드 구매(충전) 시 10%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충전금 결제 시 10% 소비촉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인센티브 적용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연 600만원이다.

이같은 소비촉진지원 정책으로 올해 다이로움 발행액(741억원) 대비 사용 결제액(738억원)의 결제율이 99.6%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 상공인 3명, 상공의 날 국무총리·산자부장관상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익산시 소재한 신젠타코리아(주) 박진보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주)덕성테크랩 국창수 대표이사와 (주)한솔홀데코 권오원 익산공장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신젠타코리아(주) 박진보 대표이사는 농업인들에게 작물보호제의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및 선진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소비자의 건강까지 책임진다는 신념에 최선을 다해 운영했다. 투명한 기업경영 및 노사관계 안정·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기부와 봉사를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덕성테크랩 국창수 대표이사는

MRO 사업의 확장성을 바탕으로 좋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파트너 기업들과 동반성장 추구·BIO산업 투자·국가식품클러스터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주)한솔홀데코 익산공장 권오원 공장장은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정착에 앞장서 왔다. 친환경 신제품 PET 보드 상용 생산과 재생 원재료 확대에 에너지 절감 및 폐기물 감소 등 친환경 경영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 부응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익산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의 날 수상자에 대한 기념패 전달 등 행사를 개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봄바람 문화추적단' 시민활동가 온라인 접수모집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군산'이라는 목적으로 시민들의 활동과 시선으로 지역 자원들을 찾고 발굴하는 시민활동 프로그램 '봄바람 문화추적단'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7일 밝혔다.

봄바람 문화추적단은 지역과 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산 구석구석을 바라볼 '봄'으로 문화적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문화도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문화·예술·인문 영역의 지역활동가 누구나 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모집을 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소방서, 재난약자 주거 시설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익산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익산시 관내 재난약자 주거시설에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과 소화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내에는 약 2만420가구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3,363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이 보급되어 65.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익산소방서에서는 올해까지 전 대상에 대하여 보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익산시로부터 9,000만원, 전라북도에서 3,500만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비용은 익산시 관내 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뜻있는 단체 및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익산소방서 의용소방대 32개 대는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총력을 기울여 익산시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재난약자들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조촌동, 안전취약 가구에 가스차단기 설치

군산시 조촌동은 안전취약가구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차단기(가스 타이머)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왕영호) 위원들이 가구를 방문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스 타이머 설치하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우리들너스 홈(이사장 최재풍)에서 제품을 후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설치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의 힘으로 주민들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가스 타이머는 가스밸브가 열린 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차단되는 장치로, 화재 시에는 경보를 울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하는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서해대 보건·의료학과 정원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해야”

### 군산시의회, 강력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서해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보건·의료학과 정원을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해대학은 1973년 군산전문학교로 시작해 전문직업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 왔을 뿐 아니라 1984년 보건·의료계 학과 개설 이후 해마다 1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교육부가 지난 1월 22일 폐쇄명령을 내려 48년간의 역사를 마감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여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인력의 지속적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서해대학의 폐교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의료서비스 확보에 크나큰 적신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는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배정규모를 서해대 등에서 반납된 방사선과 80명, 임상병리사 65명과 보건복지부 배정 간호사 등 944명을 2022학년도 조정계획을 전국 전문대학으로부터 정원 수요를 받아 4월 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정원 조정의 기본요건은 배정정원과 동수의 보건·의료계열 외 타 학과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역대학 활성화와 의료인력난이 가중되고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건·의료 인력 정원마저 빼앗겨서는 안된다”며

“정원 배정 시 군산시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타 학과 입학정원 감축 없이 의료·보건계열 정원을 군산시 소재 대학에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2025년 500명 이상 상급종합병원급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으로 향후 1,500여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군산대 의대·약대 유치 실패로 군산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산시 소재 대학들이 관련 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국회, 교육부, 군장대, 군산간호대에 송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